

故事와 불

(연재 제22회)

삼수갑산(三水甲山)

넓지않은 국토이건만 각 지방마다 물자가 풍부한 평야지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산악 오지(奧地)도 있어 사람들은 이 가운데 특히 순한 기억으로 오지를 연민한다.

경상남도 지역의 사람이라면 지리산 자락의 함양 산청을, 전라북도 지역의 사람이라면 무진장이라 별명하는 무주 진안 장수를, 그리고 1960·70년대를 전후하여 군무를 필한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인제 원통을 그리 말할 것이다.

남북이 따로 없었던 옛 시절의 한반도 오지는 단연 三水와 甲山이었다. 함경남도 삼수군과 갑산군은 북청 풍산 등과 함께 개마고원 주변의 대표적인 산악 오지로서 오죽해야 「삼수갑산에 갈망정...」하였을까.

남원의 춘향이라면 갑산에는 소춘풍(笑春風)이 있었다. 뛰어난 미모가 그렇고 곧은 절개가 그러하며 남군이 모두 해로를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난 후 고을 원님의 수청들기를 거부하여 곤욕을 치렀음이 또한 같다.

그런데 춘향이는 이도령과 해피엔딩을 얻은 반면 소춘풍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하는 운명이었다. 변심한 황인섭의 집 앞에 나뭇단을 쌓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연서를 불쏘시개로하여 燒身 자결했다. 사랑의 순교를 한 셈이다.

최근 태고종의 충담(沖澗)스님이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고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열반했다고 전한다. 6.25동란 중 작전상 오대산 상원사를 불태우려 했을 때 한암(漢巖)스님이 나뭇단을 쌓아 놓고 올라앉아 '나를 소신시킨 다음 이 절을 태우건 말건 하라'며 항거함으로써 절을 보호한 적은 있지만 삼국시대 이후 소신공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악덕 경영자의 횡포에 항거한 근로자의 분신자살(焚身自殺)이나 갑산 소춘풍이 보여준 사랑의 소신자결(燒身自決), 충담스님의 종교적 燒身供養이 각각 이름과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다는 점에서 본다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명태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먹어온 고유 어족으로서, 그 이름이 많기로 유명하다. 북쪽 함경도 연안에서 많이 잡힌다하여 北魚, 생갯을 생태, 말린 것은 건태, 얼린 것은 동태, 차가운 눈발에 얼리고 말려 얼부풀린 黃太, 정월에 잡힌 것은 최상이라하여 일태(一太)... 모두 19종의 별칭이 있다고 한다. 그 중 본명이라 할 명태는 눈이 나쁜 삼수갑산 산간오지 사람들이 겨울이면 연안 어촌에 내려와 겨우내 이 고기의 간유를 섭취함으로써 눈이 밝아졌다하여 明太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흔히 三水甲山 대신 山水甲山이라고 쓴 誤名의 갈비집이며 술집 간판에서, 어원의 옳고 그름보다는 그 집의 음식 맛은 과연 어떨까를 먼저 생각한다. (FILK)

〈金東一 / 위험진단부 차장〉